

A. 정경 이해

- 정경(canon)은 헬라어(κανών)에서 나온 말로 'rule,' "measuring stick"를 말한다. 무엇인가를 재고/측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성경(聖經), 성서(聖書), 정경(正經)
 - 성경은 '거룩한'(聖) 경전이 의미하듯, 차별화 선언. 영어로는 scripture, Gr., γραφή.
 - 정경은 '바르다(正)'가 의미하듯, 가치판단의 결과. 성경보다는 좁은 의미.
 - 성서는 '서책(書)'을 염두에 둔다. 곧 묶어 놓은 상태. 영어로는 book, bible, Gr., βιβλος.
 - 우리들은 보통 이 모두를 '정경'으로 통틀어 생각. 그것도 좁은 의미에서. 그렇다면 정경이란?
- 정경의 두 가지 의미.
 - 좁은 의미에서 정경이란 형태(shape)를 중시한 closed canon 으로, 곧 어떤 성경이 정경에 포함되고 어떤 성경은 포함되지 않는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마카비서는 타나크 성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칠십인역 성서에는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4 복음서를 제외한 20 여개 다른 복음서들은 신약성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경 밖의 성경이다=> 어떤 신앙공동체에게는.
 - 넓은 의미에서 정경은 기능(function)을 중시한 open canon 으로, 거룩한 이야기에서 거룩한 책으로(from sacred story to sacred book) 넘어가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정경을 결과물—성서에 들어간 책들을 통칭—보다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신앙공동체 가운데 정경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체의 과정을 포함한다.

B. 정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나—기준, 근거

- 전승(tradition)
 - '전승에서 정경으로'=> 전승은 전통을 계승하는 작업이다. 전통은 어느 공동체의 집합적 지혜, 유산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종종 어느 개인에게서 그 시조를 삼는다. 모세(율법), 다윗(시와 노래), 솔로몬(지혜) 등.
 - 이름없는—이름 지을 수 없는—공동체가 개인의 이름으로 전해진다(편의상). 전통으로 자리매김. Q. 노자의 '도(道)' 이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이해
- 영감(inspiration)과 계시(revelation).
 - 개신교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생각.
 - 딤후 3:16=> 모든 성경(γραφή)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θεόπνευστος). [일단 모든 성경이란 말을 쓸 당시, 딤후 3:16 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 성서 영감설의 기초가 되는 이 표현(θεόπνευστος)은 성서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며, 문법적으로는 형용사이다. 이에 근거하여 어떤 논리/이론을 펴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 굳이 설명하자면, '하느님'(θεός)과 '숨쉬다'(πνευστος <= πνέω)의 합성어다. 이 은유적 표현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지는 독자들의 몫이다.
 - 권위를 전통/전승에서 찾을 수 없을 때, 새로운 것을 주장할 때 쓰임. 최종 권위로 하느님을 부름. 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일지언정, 교회가 종교재판의 근거로 쓴다면, 우스개 소리.
- 해석방법 도입
 - 알레고리: 가장 오래된 해석학적 접근으로, 문자적 해석의 한계를 인식.
 - 역사비평: 근대(modern)와 함께 일어난 사고방식으로, 이성과 비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 문자적 해석, 전근대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고와 궁극적 진리를 추구한 점은 크게 사지만, 둘 다 바깥 어딘가에 있는 진리를 찾자 했다는 면에서 뭔가 부족하다. 나와 상관없는 진리란 없다. 근대 이후(post-modern)의 삶이 우리에게 깨우쳐 준 진리다.

C. 성서/정경—다시 읽기

- What—성경에 무엇이 들어가나? 무엇을 가르치나?
 - 인간의 신성체현. 아무 것이나? 우리들 삶에 의미있는 것.
 -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종교(宗教), 으뜸 가르침이다.

- Who—그 내용을 누가 정하나? (신령한, 혹은 θεόπνευστος) 개인? 단체? => 삶의 지혜 축적, 결국 공동체 유산.
- Why—왜 그래야 되나?
 - 가치관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달리 형성. 모든 공동체에게도 인정되어야 성서로서의 가치.
 - 도덕의 기준이 바뀐다. 노예문제, 성차별(sexism), 인종 갈등(racism), 계급(classism), 종교간의 대화=> 새로운 사회에서는 오래된 답이 문제로 등장. 고로, 새로운 답을 요구.
- How—그럼 성서를 어떻게 쓸까/출판할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 성경/성서를 다시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성서가 이미 닫힌 책(closed book)이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굳이 그것을 왜 (닫힌) 성서에 집어넣으려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 '정경' 이해의 차이.
 - 여러 본문(pluriform text)을 수록한 성서 발간. 여러 학자들이 제안한 것으로, 로버트 펑크(Robert Funk)도 "신약성서의 역사와 미래 전망"에서 밝힌다. (www.saegilchurch.org/ 신학다시하기/읽을 거리, 생각할 거리/#17 "신약성서의 역사와 미래 전망" (조성철장로님 번역).
 - 성서 다시 읽기. 본문(text=> 히브리성경, 헬라성경)과 번역본(영어, 한국어)을 비교 연구하며, 본문의 의도 뿐 아니라 번역자의 의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성경공부의 틀/기준/초석이 되어야 한다. 모든 글(γραφή, 성경)은 글, 사건, 의도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사건을 글로 쓰지만, 그 이유는 의도/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 의도를 아는 것이, 소통(communication)의 궁극적 목표고 이것을 얻으면 글과 사건의 역할은 끝난다. 거기에 매이면 강을 건넌 후 뗏목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 언제, 어디서?
 - Anytime, anywhere => 아무 때고 수정 가능함을 포함
 - 수정이 필요한 때는 성서가 '정경'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역기능을 할 때.

결론/평가

- ✚ 다른 주요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에게 성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통이자 자의식(가치관)을 담은 책이기 때문이다.
- ✚ 성서의 기능과 매력은 지속성(stability)과 적응력(adaptability)에 있다. 성서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지만 내게 의미/뜻/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책은 (넓은 의미에서) '정경'으로서 자격을 잃는다. 이 책이 여전히 성서/정경으로 작용하려면, 해석 단계를 거쳐 내게 '으뜸 가르침'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죽은 성경이다.
- ✚ 성서는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담고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억지로 통합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unity in diversity)을 찾을 때 비로소, 일관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억지로, 획일적으로 심어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내가 늘 품고 살아야 할 숙제요 화두다.

 생각해 보기—무엇이라 쓰였으며, 어떻게 읽는가(눅 10:26)

- 1) 내게 불편한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어떻게 읽는가?
- 2)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꾼/바꾸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어떻게 읽는가?